

가상통화 거래 원칙적 금지 추진

정부, 법률개정안 제출 준비... 거래행위자 처벌 강화·범죄행위로 얻은 금전, 이익 몰수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부가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행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가상통화를 거래하거나 가상통화 거래로 가장해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했다.

이율러 가상통화를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 또는 증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가상통화를 발행

하는 행위는 가상통화거래행위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치금의 별도 예치 ▲실명의무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통화를 발행해 투자금 또는 다른 가상통화의 조달행위, 신용공여, 시세조종행위,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은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유사수신행위나 가상통화거래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며, 위반행위로 얻

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이라는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자 또는 가상통화거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 또는 이익은 몰수·추징토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실명확인 조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의 부작용이 심각하고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당분간 금지·처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9월 29일 관계부처 합동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만들어진 금융위 시안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스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 전라북도 인물대상 수상



지난 12월 12일 국제뉴스에서 주최한 2017년도 전라북도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사진)이 농업경영인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임인규 조합장은 2015년 7월 취임후 농협 내 잘못되어 온 관행을 대폭 개선하고 사업 각 부문에서 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조합장 연봉 반액 삭감을 결정해 실천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조합원들에게 농업경영비 지원 목적의 '농사연금'을 지급하는 등 농협개혁에 앞장섰으며, 조합원 환원사업과 농자재 반값 공급 등 조합원들을 잘사는 농업인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대상 수상한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은 수상소감에서 "농민 조합원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촌과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성 기자

김경식전주페이퍼 상무, 신임 공장장 임명



전주페이퍼 공장장에 김경식 상무 임명 신문용지 제조업체인 전주페이퍼는 김경식상무(53·사진)를 승진발령하고 신임 공장장으로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김경식 신임 공장장은 전북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한솔제지로 입사하여 전주공장 생산팀장, 원로팀장, 청주공장 생산팀장 등을 역임했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신임 김경식 공장장은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페이퍼를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행복드림카로 편하게 이동을"

현대차 전주공장, 고산면 국제재활원에 쏠라티 전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12일 완주군, 초록우산 전북본부와 함께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재 국제재활원에서 행복드림카 쏠라티를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행복드림카 쏠라티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6000만원의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현대차와 완주군은 관내 각급 사회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곳을 선정하는 공모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국제재활원은 40여 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 장애인들의 자립지원과 사회 적응 등을 돕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 행복드림카

활용도 측면에서 최적의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준식 국제재활원 원장은 "교사들이 혼자 이동이 어려운 원생들을 차에 태울 때 허리를 잔뜩 구부린 자세로 안에서 움직여야 해 허리통증을 호소해왔다"면서 "높은 차고를 가진 쏠라티 덕분에 교사들의 건강과 원생들의 나들이길도 한층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와 완주군이 국제재활원에 전달한 프리미엄 중형버스 쏠라티는 유럽 수출시장을 겨냥해 아심차게 개발한 신제품으로 향후 현대 상용차와 전주공장 발전을 이끌어 나갈 전략 차종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익산시 어양동,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익산시 어양동 오뚜그라데 공동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제일건설로서, 주택 위치는 익산시 어양동 158-1번지 일원이고,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전용면적 84.9909평 총 15세대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대상자, 장애인 등 포함)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청약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김민근 기자

현대차-인도네시아 AG그룹, 합작 법인 설립 계약

현대자동차(주)가 인도네시아 알타 그라하(Artha Graha)그룹(이하 AG그룹)과 합작 법인(Joint Venture)을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상용차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한다.

AG그룹은 1973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10위권의 대기업으로, 현대차 인도네시아 상용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대리점의 모 기업이다.

합작 법인 설립으로 현대차는 빠르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조립 생산기지는 물론 탄탄한 판매망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돼 시장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대규모 매립지 건설사업, 광산 개발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상용차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7만대 수준이었던 인도네시아 상용차 산업수요는 올해 7만6천여대로 성장하고 2020년에는 1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자동차는 12일 여의도에 소재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AG그룹과 인도네시아에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임금증가율 대졸 186% 중졸 144%

전공별 취업률, 의약 83.2%·공학 71.3%... 교육 50.8%

4년제 대학 이상 졸업 근로자의 임금과 고졸 이하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제 대학 이상을 나온 근로자의 임금은 186.3%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고졸 근로자의 임금은 168.8%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중졸 이하의 경우 144.0%에 불과했다.

월 평균 임금의 절대액은 대졸 이상, 전문대졸, 고졸, 중졸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의 절대액이 큰 상황에서 임금 증가율까지 벌어지는 모양새다.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커졌고, 추세가 이어진다면 절대액 규모 격차도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학 내에서는 전공에 따라 실업률이 크게 갈렸다.

2015년 취업률을 보면 의약계열이

83.2%로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이 71.3%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는 사회, 자연, 예체능, 인문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열이 50.8%로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지난 2011년과 비교해 대체적으로 순위가 변동이 없었다. 예체능이 2012년부터 인문계열을 넘어서는 유일한 차이이다.

취업률을 전공 선택 기준과 연계해서 보면, '직업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해 전공을 고른 집단의 취업률이 73.5%로 가장 높았다. 반면 '주변 권유'로 전공을 선택한 집단의 취업률은 66.4%에 불과했다.

전공 선택 기준과 현재 받는 임금 사이의 관계도 나타났다. '직업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해 전공을 고른 집단의 월평균 임금이 22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흥미나 적성'을 고려한 집단은 204만원 수준에 그쳤다. /뉴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